



## 에이즈백신, 국내에서 생산

2월 24일 미국 맥스젠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에이즈백신인 에이즈백스(AIDSVAX)에 대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임상 참여자 전체그룹에 대하여는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아시아계와 흑인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 맥스젠은 계획대로 백신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백신생산은 한국 투자자들이 합작 설립한 (주)셀트리온(Celltrion, Inc.)이 담당할 것이며, 이 시설을 위한 착공식이 지난 3월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다.

“비록 임상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서 HIV 감염을 예방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그룹에서는 HIV 감염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흑인 참여자 중에서 위약을 맞은 사람들에 비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78%나 적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 미만으로써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AIDS에 대한 백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미국내의 흑인만을 백신접종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2010년까지 셀트리온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장기공급계약은 지난해 회사 설립 시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향후 범용 백신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으며 이 경우 생산량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이사는 말했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맥스젠과, 한국의 벅셀, KT&G 및 벤처캐피탈인 제이스테판앤컴퍼니 벤처스의 합작으로 설립된 바이오기업이다.

## AIDSVAX의 설계

맥스젠이 이번에 개발한 에이즈 백신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인 gp120이 인체 내 면역세포의 유도체와 결합하여 면역세포 내에 침투할 때 에이즈에 감염된다는 원리를 이용했다. 즉, 사전에 gp120과 동일한 rgp120(인공 gp120)를 접종함으로써 체내에 gp120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포에 침투하지 못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수 시간 내에 소멸되어 인체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에이즈 감염 여부 3분안에 진단

캐나다의 의료업체 메드미라의 한 연구원이 9일(현지시각) AIDS 감염 여부를 3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기를 선보이고 있다.

메드미라는 이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 제품의 중국 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메드미라는 지난달 아프리카 콩고정부와 간접 진단기 100만개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전자신문 2003-04-11]

## 사라졌던 임질 다시 늘어

2000년대 들어 성병 감염자가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1년 보험 급여 기록에 따르면 임질, 클라미디아 같은 비임균성 요도염 등 성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11.7%, 2001년엔 2000년보다 35.6% 증가했다.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다. 최근 가장 흔한 성병은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 등 비(非)임균성 요도염. 성 접촉 1주일쯤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

주된 증상은 소변보기가 불편해지면서 하얗거나 투명한 분비물이 나오는 것. 퀴놀론, 독시 사이클린 등 적절한 항생제를 적어도 1~2주는 복용해야 한다.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전립선염, 부고환염 등을 불러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임질은 성관계 5~7일후 누런 고름이 나오고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치료만 제때 하면 한번의 항생제 주사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병이 남성에게 증상이 뚜렷해 대개 제때 치료받지만 여성은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병에 감염됐을 때 배우자도 반드시 함께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밖에 매독, 헤르페스,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 등은 감염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한참 진행된 후에

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성병 예방책은 콘돔 착용. 하지만 불량 제품, 착용 시점, 성행위 형태 등으로 인해 콘돔을 착용했어도 감염될 수 있다.李교수는 "최근엔 구강, 항문 등 성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성기 외의 경로를 통한 성병의 전파가 많이 일어난다"고 밝힌다.

예컨대 입술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제1형 헤르페스가 성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전체 헤르페스 성병 환자 너댓명당 한 명 꼴이다.

또 목구멍의 인두에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등이 감염된 환자와 구강 성교를 해 감염되기도 한다.李교수는 "성병을 예방하려면 배우자가 아닌 성 파트너와 성행위를 할 땐 성행위 시작부터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일보 2003-03-31]

## "中 개발 에이즈 치료약 약효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동북제약공장(東北製藥總廠) 등이 개발한 중국형 에이즈 치료제를 환자들이 복용한 결과 치료 이전보다 건강상태가 제고됐다.

중국질병예방공제센터의 관계자는 "이 약품을 꾸준히 사용한 환자는 전보다 아주 좋은 약효를 보였다"면서 "약 3~4개월의 치료과정을 거치면 환자의 혈장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동안의 치료과정을 거치면 환자의 면역기능이 현저히 높아지고 감염 저항력이 강해져서 사회로 복귀,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체 생산한 에이즈 치료약의 시판가격을 잠정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결정한 1인당 연간 복용비용은 3천538위안(약 55만원). 그동안 중국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와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주로 수입약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매년 태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만 했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에이즈 치료를 위한 1인당 비용이 연간 3만~5만위안(471만~785만원)에 달했으나 자체 개발 치료약 시판을 계기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점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이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약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위생부 질병공제사측은 현재 중국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100만 명에 달하며 환자는 8만~10만 명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2003-03-28]

## 엘리자베스 테일러 공식은퇴 "에이즈 퇴치에 전념할 터!"

한 시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톱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5회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을 끝으로 공식적인 연예활동을 마감했다.

영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나노바'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 '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공식적인 연예활동의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에이즈 퇴치기금 마련 운동이 연예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은 4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며 할리우드 최고 스타로 군림한 그녀의 이 같은 발언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2003-03-25]

## 여성 AIDS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에이즈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여성의 수가 남성 감염자 수를 빠르게 따라 잡고 있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3월 19일 보도했다.

건강관리 분석기관인 이시스 리서치는 여성 HIV 감염자 증가세는 신규 감염자중 과반수인 51%가 이성 접촉을 통한 것이며, 동성 접촉을 통한 경우는 36%에 불과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10년 전 조사 결과는 감염자중 28%가 이성간 접촉 때문이었고, 38%가 동성간 접촉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성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증가세는 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것이라는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유럽 전역의 바이러스감염자 3천여명을 조사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 동성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신규 감염 환자들 중 51%로 다수이며, 이성 접촉을 통한 감염은 31%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3-03-20]

## 중, 초중고생 대상 에이즈 교육과목 등 개설

중국 교육부는 최근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젊은이들의 성몽속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 오는 가을학기부터 에이즈예방 등 성교육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3월 16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주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에이즈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은 중1학년부부터 고2학년까지 진행되며 매학년 평균 2과목을 편성했다. 이 교육은 남녀학생 구분 없이 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국 교육당국은 이를 위해 '에이즈 예방 전문교육교재' 등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공급했다. [연합뉴스 2003-03-17]

## FDA, 새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14일 7년만에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을 승인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치료제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내성으로 효과가 떨어져 가고 있어 새로운 치료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로슈 제약회사가 새로 개발한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밝혀져 환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FDA는 이를 감안해 속성승인 절차에 따라 이의 판매승인을 앞당겼다고 FDA 항바이러스 약물과장 데브라 비르코란트 박사는 밝혔다. 비르코란트 박사는 푸제온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세포 침투를 차단하는 치료제로 특히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존의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제온은 융합억제제 계열의 선두주자로서 HIV가 세포막과 융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HIV가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감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현재 쓰이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들은 모두 HIV가 이미 면역세포에 침투한 뒤 그 증식을 차단하는 약들이다.

푸제온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로슈 제약회사의 히서 반 네스 대변인은 연간 2만 400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치료제는 3종류의 약을 혼합투여하는 경우 1년에 약1만5천달러가 든다.

[연합뉴스 2003-03-15]

## 中, 클라미디아 성병 확산 위기

성행위를 통해 옮겨지는 질병인 클라미디아가 중국에서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으며 인구 대비 발병률이 선진 서방국에 비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진이 3월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미국의학협회 회차 최신회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중국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 성병이 매춘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고소득 남성들이 사업차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난 20년간 크게 확산됐다고 말했다.

20~60세 사이 중국인 남녀 약 3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고소득 남성 중 14.6%와 그들의 성관계 대상 중 6%가 클라미디아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인구 대비 클라미디아 발병률(남성 2.1%, 여성 2.6%)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클라미디아의 발병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남부 해안지역에서 특히 높아 남성은 16%, 여성은 9.9%나 감염됐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아프리카 농촌과 비슷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는 성병 감염률이 매우 높다. 보고서는 많은 경우 남성들이 흔히 벌 집후를 보이지 않는 클라미디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인이나 상대 여성에게 옮겨 여성들의 임신, 출산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패리시 교수는 "조용한 클라미디아가 많은 여성들에게 불임과 자궁외 임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 성병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03-03-12]

## 문란한 성이 성병을 확산

성병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성병 치료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매독·임균 감염(임질)·클라미디아균 감염 등 각종 성병 감염자는 모두 36만 8436명으로 2000년의 27만 1629명에 비해 35.6%나 늘었다고 3월 12일 밝혔다. 1999년 성병 감염자 수는 24만 3150명으로 성병은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임균 감염의 경우 2000년 4만 7149명이었던 환자가 2001년 8만 2537명으로 무려 75.1%나 증가했다. 클라미디아균 감염도 2000년 1만 6647명에서 2001년 2만 3987명으로 44.1% 늘었다.

성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병원균의 기존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겨레 2003-03-12]

## 비아그라 때문에 에이즈 늘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 바이러스 감염률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월 8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주 성병감염방지센터 소장인 클라우스니 박사는 "파이저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 에이즈 등 성병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내 비아그라 사용자 가운데 43명의 매독환자가 발생했고 14명은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매독은 지난 90년대에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병이다. [머니투데이 2003-03-09]



## 국내 에이즈외국인 18명 행방 묘연

지난 88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AIDS감염자로 드러난 18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체계에 허점을 놓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88년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AIDS 통계가 관리되기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현재 외국인 241명이 AIDS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41명중 208명은 AIDS 감염을 이유로 이미 강제 추방 조치됐고 11명은 국내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4명은 내국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AIDS 감염을 이유로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99년 12명, 2000년 20명, 2001년 47명, 2002년 44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이나 예술홍행(E-6) 취업비자로 입국,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이나 외국인 등록에 앞서 AIDS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003-03-04]

## 선천적 HIV 보균여성이 건강한 아기 출산

HIV(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난 미국 여성 6명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P) 소속 역학자 미셸 맥커널이 지난달 28일 출간된 의학 전문지 '모비더티 앤드 모텔러티 위클리 리포트'에 기고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15~22세인 이들 여성은 임신후 태아에게 HIV가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같은 태아 치료를 받고 각각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들은 모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다.

맥커널 박사는 HIV를 억제하는 약품을 사용한 에이즈 치료법의 발달로 인해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03-01]

## '에이즈 오염 혈우병약' 환자들 32억 손해訴

A씨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 16명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치료제를 만든 B제약회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B사는 86년부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해 왔으며 이 중에는 89년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상습 매혈자 C씨 등의 혈액이 원료로 사용돼 91년부터 B사의 치료제를 투약 받은 원로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료제 투여 전에는 에이즈 음성반응이었으나 투약 후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그 사이에 성관계를 갖거나 수혈을 받는 등 에이즈 감염 원인이 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부모 중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원인 규명은 철저한 과학적 인과관계 검증과 개개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91년부터 B사의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 받다가 에이즈 항체 양성반응이 나왔다. 국립보건원은 B사 치료제를 사용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사실이 알려지자 94년과 96년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재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 2003-02-28]

##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2월)

정회원					
윤병용	100,000	김길순	5,000	민영홍	50,000
정인자	50,000	최중록	10,000	오남경	10,000
현근어	200,000	정현숙	20,000	박상원	50,000
홍성욱	1,000,000	장경희	1,000,000	함유식	20,000
한정석	20,000	서영아	20,000	김준명	200,000
이영	200,000	최정인	100,000	김매자	10,000
주양자	10,000	오원외	50,000	장순복	300,000
유금숙	200,000	변광규	30,000	김금재	30,000
노영모	5,000	최형선	10,000	권순주	10,000
김영용	10,000	장병천	10,000	김소휘	10,000
이재철	10,000	석춘나	10,000	이은희	10,000
배운호	10,000	조인성	10,000	박경희	150,000
박원주	544,600	고영주	50,000		
소계	4,634,600만원				

단체회원  
실악중학교 60,000 소계 60,000만원

합계 4,694,600만원